

군 장병이 인지한 가족건강성이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

강 부 자

최 연 실**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이 연구는 군 장병들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군부대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철원군에 소재한 군부대 장병 22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AMOS), Sobel test 방식을 통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장병들이 인지한 가족건강성은 군부대 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건강성은 자아탄력성에 정적으로 유의하며, 군 장병이 가족에 대해 건강하게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건강성은 심리적 독립감에 정적 영향관계를 보여 군 장병이 가족에 대해 건강하게 인식할수록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건강성은 군 장병의 군부대 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군 입대로 개인의 자율성 상실과 집단규범에서의 스트레스에 따른 군 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의 획득의 실패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심리상담 개입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군 장병, 가족건강성, 군부대생활적응,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 본 연구는 상명대학교 2015년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최연실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 (03016)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Tel: 02-2287-5317 / E-mail: yschoi@smu.ac.kr

I. 서 론

우리나라의 군대는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안보적 대치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의무적 징집을 실시하고 엄격한 규율적 위계구조를 갖는 특수한 조직이다. 군에 입대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는 장병들은 19세부터 26세의 나이로 강제적 입대를 하는데, 이 시기는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속한다. 인간발달상 이 시기는 정체감확립 및 사회적 친밀감 형성이 중요하나, 폐쇄적이고 집단적 성격이 뚜렷한 군 생활에서의 자율적 사회활동 단절과 정체감 미확립 등으로 군대 조직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엄격한 규율과 통제된 공간에서 규칙적인 단체생활 적응에는 장병들의 정신적 독립이 필수적이지만, 부모의 과보호 또는 방임으로 성장과정에서 상처받아 의존적이거나 우울감 등을 보여 부적응하는 장병들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2005년 육군훈련소 가혹행위, GOP 총기사고 등의 군대 내에서의 사건, 사고는 군 생활 부적응자가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현저하고, 적절한 시기에 개입되지 못할 경우 신체적·정서적·심리적·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4년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을 통해 군부대 부적응 관심사병의 문제가 드러났으며 A급 관심병사 1만 7,000여명, 60만 군 장병 전체의 3.8%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시사저널, 2014). 2016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5,645건이었던 병영생활 고충상담이 2015년 1만 7,712건으로 전년 대비 313%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상담형태로는 복무 부적응, 이성문제, 진로, 인권침해 순으로 복무부적응에 대한 병사들의 상담이 70.4%를 차지해 장병들의 군생활 적응에

적극적 도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국방부, 2016). 군 생활 부적응 문제는 국가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피해를 야기함에 따라 군 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연구된 군 장병들의 부적응 요인을 살펴보면, 가족요인과 사회적 요인, 개인내적 요인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특히 가족은 개인이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삶의 기초가 되는 곳으로 가족체계 내에서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역할 규칙 등에 의해 자존감, 자율성, 친밀한 관계는 가족체계 내에서 형성된다(Olson & Russel, 1979; Olson & McCubbin, 1983). 가족 내에서 획득한 태도는 전 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황미진, 신유순, 김병수, 2009; Bowen, 1978), 가족 관련 군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족 내 의사소통과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가족의 지지가 클수록 군생활에 적응적이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 내 경제수준 또한 군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고정아, 2014; 구성본, 2010; 최혜란, 2009). 현재까지 가정환경과 군생활 적응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에서 배재규(2009)는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분노 성향을 보이고 군대에서 충동적 폭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구성본(2010)은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의사소통이 명료하며, 가정이 친밀할수록 군생활 적응력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엄덕희(2012)는 군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에서 가정경제수준이 낮다고 지각하는 병사들의 군 생활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군 장병들의 군생활 적응에 있어 가족요인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가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와 군 구성원의 지지가

군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금병규, 2009, 최혜란, 2009), 개인내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의사소통, 신뢰감, 스트레스에 적응적일수록 군생활에 적응적이라고 보고하였다(고정아, 2014; 금병규, 2009; 최혜란, 2009).

한편, 개인내적 요인 중 자아탄력성이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에서 Tugade와 Fredrickson(2004)은 탄력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역경에 직면했음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며 긍정적 감정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Rutter(1985)는 어려운 환경과 스트레스 상황 아래 원활히 적응한 상태를 탄력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Masten과 Garmezy(1985)는 탄력성은 고정적인 특성이 아니라 대처과정에서의 변화 가능한 역동적인 면을 가진다고 하였다. 국내의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양주애(2005)는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희경(2005), 권대희와 오윤자(2004)는 가족의 건강성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유의하게 설명해 준다고 하였으며, 조계연과 이은희(2007)는 초기청소년이 가족을 건강하게 인식하면 자아탄력성이 높고 문제행동은 낮아지고 가족건강성과 문제행동 간에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의 관련 변인들이 적응과 상호 관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탄력성과 군생활 적응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군생활이 적응적이게 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은 병사들이 낮은 병사에 비해 군 생활 적

응을 잘한다고 하였다(이혜영, 2011; 이용일, 2013). 이현주(2012)는 장병이 군대의 규범적 가치에 따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기통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장병이 부대생활 적응을 잘한다고 하였고, 오현철(2012)은 낙관성이라는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이 병사들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군장병의 군생활 적응에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군 생활 적응의 주요 요인으로 살펴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감은 현재 국내에서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지만, 군장병 연령과 유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왔다. Sullivan과 Sullivan(1980)은 청년기 분리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자신을 분화시켜 부모로부터 독립해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청년기의 심리발달에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Blos(1979)와 Dasheff(1984)는 후기 청년기 동안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이 높을수록 대학 적응이 순조롭다고 하였다. 또, Fleming과 Anderson(1986)은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와 정서적으로 융합 정도와 학생들의 낮은 자존감, 낮은 대학적응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국내의 가족건강성과 심리적 독립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가족을 건강하게 인식할수록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감이 건강하게 나타났으며(류남애, 유순화, 송현아, 최지현, 정애리, 2011), 심리적 독립이 대학생의 우울감과 가족건강성의 부적 관계를 매개한다고 밝혔다(강부자, 최연실, 2016).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심리적 독립은 군 장병의 경우에도 군

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고 군 생활적응 요소에서 군 장병이 나고 자란 가족특성에 따른 개인내적 특성의 영향력과 이로 인한 군부대 생활적응에 또 다른 영향 정도를 초점화한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비자발적 통제적 환경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군 장병이 인식하는 가족 건강성이 역경을 극복하는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군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부모를 포함한 가족 내에서의 건강성의 정도가 군부대 장병의 심리, 정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부적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적응을 유발하는 가족 건강성과 개인내적 요인을 파악하면 군 장병들의 신체적·심리적·정서적 부적응을 감소하기 위한 가족기능의 중요성과 개인내적 특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엄격하고 규율이 지배적인 군부대의 집단적 상황의 통제와 구속에서의 좌절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군장병들에게 개입 가능한 전문적 개인 및 집단, 가족상담이 전문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 장병의 부적응으로 발생하는 자살, 총기사고, 안전사고 등을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도 연구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이 군 장병의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을 통한 간접적 매개를 살펴보는 이론적 모형을 통해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군생활을 적응적으로 돕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철원군에 소재한 S부대에서 2015년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군 장병 250명을 대상으로 장병들이 지각한 가족 건강성과 군부대생활 적응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익명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자료수집은 비확률표집을 통해 이루어졌고, 설문지는 280부를 배포하여 250부를 회수하였으며, 전체 수집된 250부 중 결측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21부를 제외한 229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연령은 20, 21세가 13명(5.7%), 22, 23세 180명(78.6%), 24, 25세가 31명(13.5%), 26, 27세가 4명(1.7%), 28세 이상이 1명(0.4%)이었다. 계급으로는 일병이 90명(39.3%)로 가장 많았고, 상병이 88명(38.4%), 병장이 28명(12.2%), 이병이 23명(10%)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재학생이 169명(73.8%)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50명(21.8%), 대학교 졸업이 10명(4.4%)순 이었다. 가구경제수준은 중 109명(47.64%), 상 69명(30.1%), 하 51명(22.3%)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군생활적응

군생활적응 척도는 Stauffer, Suchman, Devinney와 Williams가 만든 척도를 김정은(2013)이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일반적 특성
(N=229명)

변인	항목	빈도(명)	비율(%)
연령	20.21세	13	5.7
	22.23세	180	78.6
	24.25세	31	13.5
	26.27세	4	1.7
	28세이상	1	.4
계급	이병	23	10.0
	일병	90	39.3
	상병	88	38.4
	병장	28	12.2
학력	고등학교 졸업	50	21.8
	대학교 재학	169	73.8
	대학교 졸업	10	4.4
가족 유형	양부모가족	188	82.1
	한부모가족	37	16.2
	기타	4	1.7
가구경제 수준	상	69	30.1
	중	109	47.6
	하	51	22.3

하위요인으로 심신안정 5문항, 업무수행의지 5문항, 직책과 직무만족 5문항,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5문항, 생활반 적응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2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부정적 문항(20, 22, 23) 문항은 역채점 처리하였다. 이 점수는 군생활 적응은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9이며,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심신의 안정 .81, 임무

수행 의지 .79, 직책과 직무만족 .85,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64, 생활반 적응 .67로 나타났다.

2)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 척도는 어은주와 유영주(1995)가 한국의 가족과 외국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가족의 특성을 중심으로 개발한 척도를 윤세은(2000)이 청소년 연구에서 문항들의 종결어미만 '~느낀다', '~라고 생각한다'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가족원 간 유대 10문항, 가족원 간 의사소통 9문항,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6문항, 가족원 간 가치체계 공유 9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총 34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까지 5점의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6이며,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가족원 간의 유대 .94,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85, 가족의 문제 해결 수행능력 .70,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87로 나타났다.

3) 심리적 독립감

조사 대상자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Hoffman(1984)이 제작한 심리적 독립척도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PSI)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은희(1993)는 138문항 중 우리 실정에 맞게 112문항으로 번안하고 수정한 '심리적 독립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PSI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한 각각의 기능적 독립 13문항, 태도적 독립 13문항, 정서적 독립 10문항, 갈등적 독립 20문항인 4개의 하위척도로 나누어진다.

각 56문항으로 측정방식은 '전혀 아니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의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로부터 독립이 잘 되어 있는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문항을 역채점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으로 환산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독립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부는 .92, 모는 .91이며,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부의 기능적 독립은 .85, 모의 기능적 독립은 .87, 부의 태도적 독립은 .86, 모의 태도적 독립은 .84, 부의 정서적 독립은 .75, 모의 정서적 독립은 .74, 부의 갈등적 독립은 .89, 모의 갈등적 독립은 .88로 나타났다.

4) 자아탄력성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Ego-Resiliency Scale을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역한 뒤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대인관계 3문항, 활력성 2문항, 호기심 2문항, 낙관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14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까지 5점의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며,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대인관계 .70, 활력성 .52, 호기심 .56, 낙관성 .72로 나타났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다.

3.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는 군 장병들의 가족건강성과 군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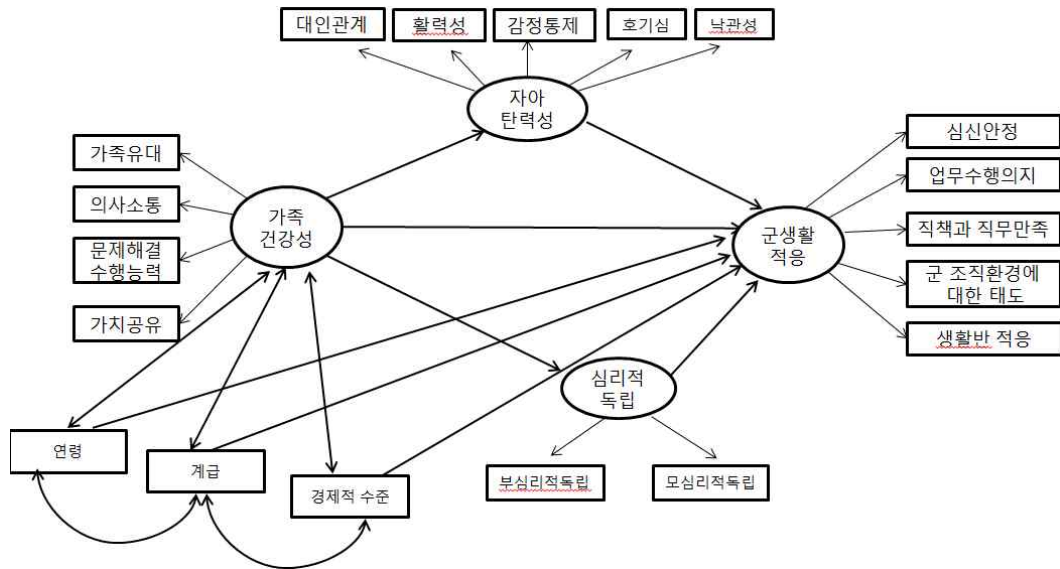
〈표 2〉 측정도구의 신뢰도계수

변수	문항 수	Cronbach's α 부/모
가족건강성(전체)	34	.96
가족원간 유대	10	.94
가족원간 의사소통	9	.85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6	.70
가족 간의 가치체계 공유	9	.87
레질리어스(전체)	14	.87
대인관계	3	.70
활력성	2	.52
호기심	2	.56
낙관성	5	.72
심리적 독립(전체)	56	.92/ .91
기능적 독립	13	.85/ .87
태도적 독립	13	.86/ .84
정서적 독립	10	.75/ .74
갈등적 독립	20	.89/ .88
군 생활 적응(전체)	25	.89
심신의 안정	5	.81
임무 수행 의지	5	.79
직책과 직무만족	5	.85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5	.64
생활반 적응	5	.67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군장병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군생활에 적응적일 것이다.

가설 2. 군장병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3. 군장병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독립감이 높을 것이다.

가설 4. 군장병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에 관한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감은 간접적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수집된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특성 빈도분석과 측정도구 신뢰도 검증 Cronbach's α , 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 장병이 인지한 가족건강성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을 통한 간접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여 구조모형을 검증하였으며, 연령, 계급,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1.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을 위해 측정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그리고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군장병이 인지한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r = .38, p < .01$)은 높은 정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가족건강성과 심리적 독립감($r = .33, p < .01$)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적응($r = .52, p < .01$)은 높은 정도의 정적 상관이 있는

<표 3> 주요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변수 간 상관계수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	1																						
2	-.085	1																					
3	-.151*	.083	1																				
4	-.048	.006	.187**	1																			
5	-.043	-.027	.186**	.890**	1																		
6	-.070	.001	.158*	.852**	.811**	1																	
7	-.019	.035	.180**	.858**	.876**	.770**	1																
8	-.046	.005	.130**	.961**	.953**	.906**	.936**	1															
9	.125	-.080	.091	.378**	.338**	.324**	.406**	.387**	1														
10	-.014	.059	.097	.284**	.356**	.269**	.391**	.348**	.550**	1													
11	.004	.044	.155*	.200**	.258**	.204**	.291**	.254**	.344**	.746**	1												
12	-.014	.022	.143*	.168*	.258**	.233**	.278**	.248**	.443**	.579**	.553**	1											
13	.028	.006	.091	.226**	.261**	.232**	.329**	.280**	.346**	.482**	.465**	.627**	1										
14	.028	.018	.148*	.312**	.371**	.316**	.427**	.380**	.650**	.856**	.812**	.819**	.766**	1									
15	.000	-.072	.077	.257**	.315**	.285**	.384**	.331**	.215**	.102	.162*	.262**	.163*	.227**	1								
16	-.004	-.068	.039	.228**	.300**	.278**	.351**	.307**	.141*	.042	.124	.203**	.087	.153*	.837**	1							
17	-.002	-.073	.060	.252**	.321**	.294**	.384**	.332**	.185**	.075	.149*	.242**	.135*	.198**	.958**	.959**	1						
18	.085	-.010	.104	.438**	.447**	.381**	.505**	.474**	.555**	.585**	.463**	.501**	.441**	.643**	.314**	.241**	.289**	1					
19	.006	-.046	.039	.325**	.381**	.353**	.464**	.406**	.413**	.358**	.298**	.497**	.368**	.487**	.422**	.348**	.401**	.508**	1				
20	-.014	-.038	-.018	.334**	.328**	.373**	.456**	.397**	.379**	.382**	.310**	.307**	.386**	.448**	.242**	.257**	.260**	.510**	.544**	1			
21	-.059	-.169*	.098	.326**	.355**	.295**	.380**	.362**	.270**	.282**	.253**	.309**	.294**	.353**	.291**	.239**	.277**	.447**	.563**	.444**	1		
22	.088	.154*	.048	.277**	.213**	.217**	.223**	.249**	.377**	.272**	.153*	.121	.191**	.274**	-.136*	-.130*	-.139*	.339**	.076	.343**	.132*	1	
23	.000	-.033	.068	.468**	.476**	.453**	.567**	.524**	.549**	.515**	.408**	.484**	.488**	.611**	.325**	.278**	.314**	.761**	.775**	.818**	.714**	.505**	1
M	1.02	2.53	3.10	4.02	3.66	3.72	3.68	3.77	3.26	2.95	2.78	2.85	2.87	2.94	3.05	3.03	2.82	3.05	3.72	3.18	3.63	3.28	
SD	.15	.83	.89	.69	.62	.55	.67	.59	.46	.58	.67	.57	.67	.47	.48	.46	.46	.61	.83	.85	.66	.67	.52
왜도	6.587	.023	-.011	-.681	-.256	-.630	-.322	-.546	-.265	-.315	-.096	-.303	-.156	.001	.205	.236	.363	.108	.371	-.250	-.238	-.005	.136
첨도	41.755	-.559	.005	.788	-.004	.481	.816	.694	1.289	.555	-.174	.423	-.253	.532	1.886	1.086	1.384	-.034	.140	-.455	.314	-.074	.105

주. 1. 연령, 2. 계급, 3. 가족경제 수준, 4. 가족원간 유대, 5. 가족원간 의사소통, 6.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7. 가족 간의 가치체계 공유, 8. 가족건강성전제, 9. 대인관계, 10. 활동성, 11. 감정통제, 12. 호기심, 13. 낙관성, 14. 자아민력성 전제, 15. 아버지 독립, 16. 어머니 독립, 17. 심리적 독립전제, 18. 심신의 안정, 19. 임무 수행 의지, 20. 직책과 직무만족, 21.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22. 생활만족, 23. 군생활전제 전제

* $p < .05$, ** $p < .01$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감($r = .20, p < .01$)은 정적 상관관계를, 자아탄력성과 군 생활적응($r = .61, p < .01$)은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심리적 독립감과 군 생활적응($r = .31, p < .01$)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다음 구조방정식 모형의 가정인 측정변수들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 첨도 값을 살펴본 결과, 표 3에서, 왜도, 첨도 모두 2를 넘지 않고 절대값이 왜도 2, 첨도 4를 넘지 않을 경우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켜(Finch & West, 1997) 본 연구의 모든 측정 변수가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켰다.

다음은 측정 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4에 제시하였다. 적합도가 $\chi^2 = 423.003(.001)$, $df = 141$, CFI = .837, TLI = .865, NFI = .844, RMSEA = .094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 결과는 표 5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경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이 심리적 독립감에 이르는 표준화 계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beta = .35, p < .001$). 가족건강성이 자아탄력성에 이르는 표준화 계수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 = .41, p < .001$). 가족건강성이 군 생활적응에 이르는 표준화 계수는 유의미하였으며($\beta = .29, p < .001$), 마지막으로, 심리적 독립감이 군 생활적응에 이르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beta = .22, p < .001$)와 자아탄력성이 군 생활적응에 이르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beta = .60, p < .001$)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추정치를 살펴 본 결과, 군 장병이 인지한 가족건강성이 심리적 독립감, 자아탄력성, 군 생활적응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표 4〉 모형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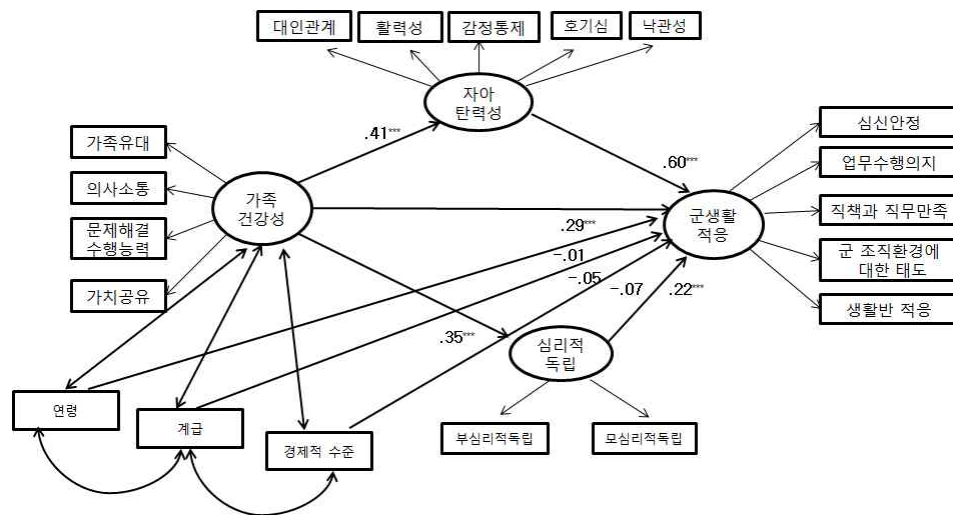
(N=229명)

적합지수	$\chi^2(p)$	df	CFI	TLI	NFI	RMSEA
모형	423.003(.001)	141	.837	.865	.844	.094

〈표 5〉 연구모형의 계수 추정치

경로	B	β	S.E.	C.R.
심리적 독립 ← 가족건강성	.24	.35	.05	4.83***
자아탄력성 ← 가족건강성	.19	.41	.04	5.26***
군생활 적응 ← 가족건강성	.23	.29	.05	4.56***
군생활 적응 ← 심리적 독립	.25	.22	.07	3.81***
군생활 적응 ← 자아탄력성	.98	.60	.14	6.98***
군생활 적응 ← 연령	-.00	-.01	.02	-.14
군생활 적응 ← 계급	-.03	-.05	.03	-1.02
군생활 적응 ← 가구경제수준	-.04	-.07	.02	-1.3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연구모형의 표준화 구조계수

마지막으로, 심리적 독립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Sobel test의 결과값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정한다(Baron & Kenny, 1986). 제시된 표 6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Sobel 검증결과, 가족건강성 → 자아탄력성 → 군 생활적응의 매개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5.0, p < .001$).

또한 가족건강성 → 심리적 독립감 → 군 생활적응 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2.30, p < .001$).

즉,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감은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군 장

병이 인지한 가족건강성이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표 7에서는 주요변인들 간 관계에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효과성을 분해하고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은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정도도 다름을 알 수 있다. 가족건강성은 군생활적응에 직접 영향($\beta = .29, p < .001$)을 미침과 동시에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감을 통해서 간접적 영향($\beta = .32,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 6〉 Sobel 검증

매개 경로	a	Sa	b	Sb	Z
가족건강성 → 자아탄력성 → 군생활 적응	.30	.05	.54	.06	4.99***
가족건강성 → 심리적 독립감 → 군생활 적응	.26	.05	.18	.07	2.30***

** $p < .01$. *** $p < .001$.

〈표 7〉 주요 변인들의 직접·간접 및 총 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41***	-	.41***
	심리적 독립	.35***	-	.35***
	군생활 적응	.29***	.32***	.61***
자아탄력성	군생활 적응	.60***	-	.60***
심리적 독립	군생활 적응	.22***	-	.22***

주. Bootstrap=500, 추정치는 표준화된 계수임

** $p < .01$. *** $p < .001$.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감은 유의미한 매개변인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장병들이 인지한 가족건강성은 군 부대 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유대감과 의사소통, 가족문제해결력과 가족의 가치체계 공유에 있어 건강하게 지각할수록 군 생활에서의 심신안정, 업무수행의지, 직무만족, 군조직 태도, 적응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는 군 장병의 군생활 적응에 가족 건강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장정기, 고재량과 김경순(2014), 구성본(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가족 간 관심과 보살핌, 의사소통이 원만할수록 학교생활이 적응적이라고 보고한 김혜래와 최승희(2009)의 연구와 가족건강성이 다른 환경 체계보다도 학교생활 부적응에 중요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김현주(2009)와 이해경(2009)의 연

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가족이 원만하고 건강할수록 사회적 집단생활에 적응적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 가족건강성은 자아탄력성에 정적으로 유의하며, 군 장병이 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 이는 군 장병들의 자아탄력성에 가족건강성이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강명숙, 2015)와 일치하며, 강희경(2005)과 권대희와 오윤자(2004), 조계연과 이은희(2007)의 아동, 청소년이 경험한 가족건강성이 자아탄력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즉, 가족과의 긍정적 경험이 많은 사람은 상황적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족건강성은 심리적 독립감에 정적 영향관계를 보여 군 장병이 가족에 대해 건강하게 인식할수록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감이 높다. 가족건강성이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감에 모두 유의미하다는 류남애 등(2011)의 연구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우울에 심리적 독립이 가족건강성을 매개하여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구경호(2014), 강부자와 최연실

(2016)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는 가족이 소통하고 문제해결에 참여하며, 적절한 가치공유와 유대감을 형성할 때 자녀가 세상에 대해 적절하게 도전하고 결정하며,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가족건강성은 군 장병의 군 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 따라서 가족건강성은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감은 군부대 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건강성과 군생활 적응 간에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족을 건강하게 인식하는 군 장병들은 군대라는 새로운 특수조직 내에서의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스트레스 환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의 정도가 높았다. 더불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심리적 독립감도 높게 나타났으며 두 요인은 군부대 생활적응을 높이는 매개효과를 갖는다. 특히, 자아탄력성의 경우,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적응 변인을 매개하였을 때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건강성과 사회적 집단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독립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강명숙(2015), 한병래(2016), 강영진과 이정화(2014)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가족의 긍정적인 유대감과 의사소통이 군 장병들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을 돕는 중요한 개인내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중심으로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군 장병들이 인지한 가족건강성이 군부대 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가족기능과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연구결과라고 할 것이다. 초기 환경인 가족관계 및 가정의 분위기는 발달에 있어서 영·유아기, 학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청년기에 이르러서도 약해지지 않고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군 생활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군 생활이 집단생활이며 강도 높은 사회단체 생활이라고 할 때 군 입대 시기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고조되는 시기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때 건강한 가족에서 성장한 군 장병의 경우는 군 생활에 보다 원만히 적응한다는 사실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원가족에서 평소에 구축한 가족 유대감과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력과 가치체계 등은 폐쇄적이고 엄격하게 유지되는 군 생활에 적응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가족생활에서 구축된 심리적 역량이 군 생활에서의 심신 안정, 업무수행의지, 직무만족, 군 조직 태도 등 총체적인 군 생활에의 적응에 기여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결과를 가족생활교육에 반영하여 입대한 군 장병의 가족 면회나 휴가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가족건강성은 군 입대 장병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사회복지 영역의 주요한 이론적 틀로 부각되어 온 강점이론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여러 역경을 이기고 험난한 상황에서의 적응을 도모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거론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관계나 분위기를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군 장병은 자아탄력성이 높아 군 생활에서도 잘 적응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아탄력성은 그 자체로 여러 상황에서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자원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과 연관해 군 장병의 생활 적응을 도모하는 심리적 기제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과 관련하여 이를 증진시키는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과제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이 심리적 독립감에도 정적 영향관계를 보여 군 장병이 가족에 대해 건강하게 인식할수록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의 슬하를 떠나 집단생활에 돌입하는 군 생활에서 본인의 가족이 건강하다고 지각한 장병들이 훨씬 더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영향력이 대학생활에까지 미치고 ‘헬리콥터 부모’라는 용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부모가 성인자녀를 도와주고 간섭하며 자녀들조차 부모에게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의지하는 최근의 현실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건강한 부모들이 오히려 아들들을 심리적으로 ‘진수(launching)’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경우, 군 생활은 온전하게 부모의 도움이나 영향력을 벗어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때, 이러한 심리적 독립은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이 군 장병의 군부대 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감을 경유하여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도 보여주었다. 즉,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감은 군 장병의 가족건강성이 군부대 생활 적응에 미치

는 영향력을 매개한다. 이는 결국, 가족건강성이 군 장병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성으로 대표되는 개인적 심리적 역량을 증진시켜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스트레스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군부대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바탕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에서의 결과들을 통해 추론해 보자면, 군부대 생활 적응의 토대를 잘 구축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가족생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군에 입대한 군 장병들의 가족생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도할 수 있는 작업들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군 장병들의 가족 면회나 휴가 시에 가족관계를 살피고 이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여 가족교육이나 가족상담 등의 기초자료 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군 부대에 따라서는 가족문제를 상담해 줌으로써 군 장병의 심리적 안정과 군 생활 적응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군 상담이라는 영역도 꾸준히 개척되어 현재는 상담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는 이러한 군 상담과 가족상담, 가족치료의 접목이나 결합 가능성도 활발하게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건강성이 자아탄력성이나 심리적 독립과 같은 개인적 역량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군생활 적응에 기여하는 바와 같이 가족과 연관시켜 군생활 적응을 도모할 수 있는 다른 심리적 자원들도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군 장병의 표집을 한 특정지역의 한

부대에 국한시켰으므로 일반화에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다수의 지역으로 확대된 후 속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가 보완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중 자아탄력성의 하위 차원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낮은 경우가 나타났는데, 향후 시행되는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아탄력성의 하위차원들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재검토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가족건강성이라는 가족변수가 군입대장병의 군 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 심리적 독립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경험적으로 입증해내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끝으로,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군 입대로 개인의 자율성 상실과 집단규범에서의 스트레스에 따른 군 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의 획득의 실패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심리상담 개입 프로그램이 개발,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강명숙 (2015). 군입대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건강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부자, 최연실 (2016). 가족건강성이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3(3), 71-90.

강영진, 이정화 (2014). 아동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26(1), 59-71.
강희경 (2005). 서구 사회의 변화와 대안적 가족 모델. 충북대학교 사회대 사회과학연구, 22(2), 3-25.
고정아 (2014). 군인들의 스트레스 대처, 양육태도, 대인관계가 군대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경호 (2014).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업탄력성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8), 69-89.
구성분 (2010). 가정환경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방부 (2016). 국방통계연보 2016.
권대회, 오윤자 (2004).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15-127.
금병규 (2009). 군복무 병사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및 스트레스가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은 (2013). 병사의 군 생활적응을 위한 개인역량과 사회적 관계망 연구: 스트레스 대처모델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주 (2009). 청소년들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래, 최승희 (2009). 가족건강성과 학교체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0, 159-182.
류남애, 유순화, 송현아, 최지현, 정애리 (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심리적 독립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8(10), 65-87.
배재규 (2009). 가정과 학교폭력이 군 폭력 성향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시사저널 (2014). 제2의 '임 병장' 언제든 다시 나온다. 2014. 07. 02.

- 양주애 (2005). 가족건강성 및 자아탄력성과 대학생생활 적응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은주, 유영주 (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5.
- 엄덕희 (2012). 군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 복지연구센터, 11(0), 31-61.
- 오현철 (2012).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군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지, 16(4), 189-206.
- 윤세은 (2000).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서울시 남녀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일 (2013). 부모와의 대상관계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주 (2012). 군 장병의 자아탄력성과 부대 적응도의 관계: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2009).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영 (2011). 병사들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정기, 고재량, 김경순 (2014). 해병대 병사가 지각한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와 군 생활 적응간의 구조관계적 분석. 한국군사회복지학회, 71, 97-125.
- 정은희 (1993).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생활 적응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계연, 이은희 (2007).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부모의 양육행동, 가족건강성과 문제 행동간의 관계에서의 매개역할. 한국청소년연구, 18(1), 79-106.
- 최혜란 (2009). 군 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병래 (2016).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 부모역할책임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건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미진, 신유순, 김병수 (2009).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 수준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2), 195-212.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Blos, P. (1979). Modifications in the traditional psychoanalytic theory of adolescent development. *Adolescent Psychiatry*, 8, 8-24.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Y and London, Jason Aronson.
- Dasher, S. S. (1984). Active suicide intervention by campus mental health service: Operation and rationale.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33, 118-122.
- Fleming, W. M. & Anderson, S. A. (1986). Individuation from the family of origin and personal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2(3), 311-315.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 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 Family Systems: 1 Cohesion & Adaptability Dimensions. Types & Clinical Applications. *Fam. Proc.*, 18(1), 3-28
- Olson, D. H., & McCubbin, H. W. (1983).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CA: Sage.
- Masten A. & Garmezy, N. (1985). Risk,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factors in

-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B. B. Lahey & A. E. Kazdin(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8, 1-52.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Sullivan, K. & Sullivan, A. (1980). Adolescent-parent sepa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6, 93-99.
- Tugade, M. M. & Fredrickson, B. L. (2004).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320-333.
- ☐ 논문접수일 : 2017년 02월 06일
- ☐ 심사시작일 : 2017년 02월 22일
- ☐ 게재확정일 : 2017년 03월 16일

Effects of Healthy Families on Soldiers' Self-Resilience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Buja Kang

Younshil Choi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how soldiers' self-resilience and sense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acts as an intermediary in relation to the military-service adaptations of soldiers perceived to have healthy family relationships. **Methods:**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AMOS), and Sobel test methods, data were analyzed from 229 soldiers located in Cheolwon Gun and Kwangwon Provinces. **Results:** The perception of having a healthy family directly affected soldiers' adjustment to military life; however, it also indirectly affected this adjustment by virtue of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 healthy family and the soldiers' self-resilience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Conclusions:** A healthy family is one of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self-resilience in the military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parents. Such information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counseling intervention programs designed to prevent negative issues and stress among soldiers.

Keywords: *family health, psychological independence, resilience, military, adaptation*